

세계속 우리문화 비교연구 글로벌마인드 양성

제24기 광주민속박물관대학 내달 8일 개강 '세계의 이야기 여행- 신화·민담' 주제 열려 8개 강좌·2회 답사... 특수한 가치관 등 이해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윤승중)은 오는 3월 8일 제24기 광주민속박물관대학을 개강한다. 1992년 시민통문문화강좌로 시작해 1996년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는 광주민속박물관대학은 다른 나라 문화와 우리 문화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공통점, 차이점 등을 조망해 보며 글로벌마인드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매년 수강신청 알림과 동시에 정원이 꽉 차는 박물관대학은 올해 역시 5일 만에 접수가 마감되며 시민들에게 실속있는 강좌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올해는 '세계의 이야기 여행- 신화·민담'이라는 주제로 3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8개 강좌와 2회 답사로 꾸러질 예정이다. 이번 박물관대학은 이런 이야기 속에 깃들여 있는 민족적 정서와 문화적 특수성을 둘러보고 구비전승문화에 대해 관심 있는 시민들이 다른 나라 문화의 특수한 가치관이나 의식세계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화·민담은 한 나라의 문화적 상징이자 그 나라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야기로, 공동체 단결에 구심점을 형성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해준다. 이후 신화학자 정재서 교수(이화여대)의 중국 신화의 세계, 김세건 교수(강원대 문화인류학과)의 '열정의 나라, 멕시코의 신화', 이평래 연구교수(한국의국어대)의 '몽골초원의 신화', 노성환 교수(울산대 일본어학과)의 '일본 신화', 최혜영 교수(전남대 사학과)의 '그리스·로마의 신화여행', 전혜경 교수(한국의국어대 베트남어학과)의 '베트남 민담', 이상현 교수(안동대 민속학과)의 '독일 민담' 등 주요 나라의 옛 이야기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만나

본다. 3월 29일과 4월 26일에는 각 전북 김제와 충남 서천으로 답사를 나가 우리 문화를 현장에서 느껴보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문화적 갈등이나 격차의 해소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에게 이번 박물관대학 강좌가 세계 여러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작은 디딤돌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강 소감을 전했다. /이보람 기자



문화 브리핑

- ◇순연우 초대전=18일까지 S갤러리
- ◇정향은 개인전 '항기를 그리다' 전=18-28일 북구청민원실 갤러리
- ◇가족 뮤지컬 '백설공주와 난쟁이들'=19일 오전 10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 ◇김다미 이택기 듀오 리사이틀=19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 ◇2019 에이샷피아노 페스티벌=20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 ◇판화 '이민' 특별전=20일까지 양림미술관
- ◇청년작가 김민지 개인전=20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 ◇무지컬 '플래시댄스'=21-2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목·금 오후 7시 30분, 토·일 오후 2시·6시 30분) (사진)
- ◇김아람 트리오 2019=21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 ◇김성희 개인전=21~27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1관
- ◇목가구와 달항아리=21~3월 2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 ◇김보현 소장품 기획전 II 사랑과 영혼=22일까지 김보현실비아올드미술관
- ◇원화 전시 '쇠를 먹는 불가사리'=22일까지 서구문화센터
- ◇신소장품 2018=22~6월 21일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제5, 6전시실
- ◇전남의대 관현악반 제30회 정기연주회=23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 ◇미니악페스타&봉선음악감상회=23일 오후 7시 하멜아트홀
-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전 '하나오카 이야기'=23~4월 24일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하정웅미술관
- ◇우제길의 빛=24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6관
- ◇미디어아트 특별전 '당신 속의 낙원_Media YouTopia'=24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제1, 2전시실
- ◇'도미야마 다에코-광주의 피에티' 전=24일까지 5·18기념문화관
- ◇연극 'S다이아리'=24일까지 기본좋은극장

선종 10주기 김수환 추기경 추모행사 거행

가톨릭출판사 '김수환 추기경 서체' 개발 육필 원고 바탕 생전 필체 표현·특징 살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김수환 추기경 서체.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인 지난 16일 추기경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이날 명동대성당에서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10주기 추모 미사를 거행했다.

염 추기경은 강론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은 서울대교구 교구장으로서, 또 혼란한 시대에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우리 민족의 등불로서 빛을 밝혀 주셨다"며 "김 추기경님이 남겨주신 사랑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서도 본받고자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기경님은 인간의 삶에서 물질이나 명예, 권력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사랑과 용서, 나눔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며 "오늘날 물질만능주의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시대에 더욱더 김 추기경님이 남겨신 중요한 정신이 그 리운 이유"라고 말했다.

이날 미사에는 주한 교황대사 엘프리트 슈에레브 대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한 사제들과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배우 이윤지, 가수 바다 등 약 3,000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에서 슈에레브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격려와 인사를 전했다.

그는 "교황님께서 추기경단 선배이신 김수환 추기경님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며 "교황님께서 김 추기경님이 보편교회와 이 땅의 민주화 역사에 영혼의 참된 목자로서 기여하신 특별한 역할을 상기하셨다"고 말했다.

김희중 대주교는 "김수환 추기경님은 한국의 가난하고 불의한 역사와 묵묵히 함께하셨다"며 "정치적으로 장기간 정권을 계획하는 정부에 대해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물으며 시대의 어른으로서 권

력에 당당히 맞서셨다"고 회고했다.

김 대주교는 "5.18에 대해서는 당시 생애에 가장 쓰라린 아픔을 준 비참한 역사의 한 사건이라며 슬픔을 감추시지 않았다"며 "근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 일부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신다면 김수환 추기경님은 어떤 심정이시며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추기경이 어린 시절을 보낸 경북 구미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도 추모 미사와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한편 가톨릭출판사는 김 추기경의 삶과 정신을 기억하고 알리는 선종 10주기 기념사업의 하나로 '김수환 추기경체'를 개발했다.

이 서체는 김 추기경의 육필 원고를 바탕으로 생전 필체 표현과 특징은 물론 사용하던 펜의 질감까지 검토해 최대한 같은 느낌이 나도록 제작했다.

가톨릭출판사는 "글씨란 그 사람의 삶과 정신이 녹아든 마음의 그릇"이라며 "김수환 추기경체는 이제는 직접 만날 수 없는 추기경님을 곁에 있는 듯 느끼고 그분의 삶과 정신을 되새기도록 해 줄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화누리카드 발급 받으세요

지원액 8만원으로 인상...이용범위도 확대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으로 공연, 영화, 전시, 스포츠 관람과 도서 및 음반 구입, 체육 단련장과 볼링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 체육용품점, 숙박, 여행,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등 다양한 전용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액이 8만원으로 인상, 케이블TV 수신료, 수영·헬스·요가·에어로빅 등의 월 회원권 및 영화관·놀이공원·지역축제 식음료 등으로 이용범위도 확대된다.

특히, 지난해 말 장애인·고령자 및 문화시설 부족 지역 거주자

를 위해 시작한 케이블TV 월 수신료는 매달 후불 전화 결제를 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 목적이 뚜렷한 장소성을 가진 영화관, 놀이공원, 지역축제 등 특정 가맹점에 한해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식음료 결제도 가능하도록 이용기준이 완화됐다.

지난해 일일 입장권만 구입 가능했던 수영·헬스·복싱·요가·에어로빅 등 체육시설의 월 회원권도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6세 이상(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누리카드는 1회당 100원~10만원까지(연간누적금액 200만원 한도) 현금을 충전해 문화누리카드 할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고, 본인이 충전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개인에게 발급된 세대원 카드는 총 15명 이내에서 세대 대표 명의 카드 1장으로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재충전은 11월 30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이보람 기자



문화누리카드.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준주거지역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 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감정/시세-11억
- 급매 - 8억(2019년 2월 28일까지)

문의. 010-6834-7400